



정진욱 아카데미 원장



정희남 대담미술관장



박흥근 건축사



이형석 전 광주시부시장



홍진태 라마다호텔 고문



정민호 보혜양조 전무



서선명 놀이협회 대표



정승욱 희망나무 대표



서지안 모토모 대표

“광주만의 특색 담긴 랜드마크 만들어 관광객 오게 해야”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1차 원우세미나가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 발전 이끌 미래 먹거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진욱 새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원우들은 문화·건축·정치·경제·음식·체육·사회·장업·도시 등 9개 분야로 나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했다.

▲정희남 대담미술관장=문화는 사소한 것에서 싹튼다. 그런데 광주는 지역 특색이 담긴 랜드마크가 없다. 랜드마크를 만들어 관광문화를 활성화시켜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도 구 도심에 레이저 쇼를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장축제는 아쉬움이 있다. 축제를 통해 문화가 쌓여야 하는데 한 해에 끝나고 만다. 그런 축제는 의미가 없다.

도시의 다양성과 랜드마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으면 자기 욕구에 맞는 곳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제 광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개성, 문화의 특징을 이용한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

▲박흥근 건축사=원 도심은 도시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도시 정체성은 과거 흔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쌓아 그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가치를 높여가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원도심이다.

무등산, 양림동, 옛 전남도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금남로, 총장로에는 서로 연결되는 골목길이 있다. 하지만,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나?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옛 도심과 옛 전남도청사와 함께 있다. 이곳과 이 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정치에는 크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정의 실현과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분배 정의 실현이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예산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자외외에 투자했다. 그런 예산을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교육에 투자했다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을 것이다. 또한 정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 폭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과거 인혁당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온 국민을 침울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 등이 있다. 광주·전남 정치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해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1차 원우 세미나 -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무엇인가



지난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세미나'에서 정희남 대담미술관장의 주제발표를 원우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에 부가가치 높은 차량 엔진생산업체 들어와야 정치는 사람이 가장 중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 놀이문화는 인생 활력소 ...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선거 공천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권역별 공천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선거 공천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홍진태 라마다호텔 상임고문=광주·전남은 기자자동차 등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로, 지역산업의 허리역할을 할 강소기업의 성장이 미흡하다. 특히 광산업 이후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이 없을 정도로 차세대 성장동력이 없다.

지금 광주는 '자동차 100만대 도시'가 화두다. 하지만 광주에 있는 기아차 1차벤더는 차체 공정이 대부분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과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유치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수 많은 경제정책은 상호 연계성이 없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집

단의 이해가 반영된 정책이 이뤄지기도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Platform)'을 도입해야 한다.

▲정민호 보혜양조 전무=남도인들이 다른 지역민들보다 우수한 문화 부문, 즉 식문화 핵심 역량을 사업화해 미래 광주·전남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선하고 풍부한 농수산물의 원·부재로 확보로 인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많은 (쉐프)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남도 식문화 사업의 우수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식문화 사업화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현명한 소비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우선 남도 식문화를 즐기고 농수산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

격에 구매해주는 현명한 소비활동을 지켜줄 때 남도 식문화 사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유지될 것이다.

▲서선명 한국체육놀이협회 대표= 놀이문화는 인생의 활력소다. 갓난아이부터 80세 이상 노인들까지 놀이문화 없이는 삶을 즐겁게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체육적 요소를 포함한 놀이문화는 인간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동호인 육성 지원사업, 직장 생활체육 활동을 육성해 만족도 높은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의 체육활동도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체육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적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넓은 운동장, 체육관 시설 확충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 개발 등

도 시급하다. ▲정승욱 (사)희망나무 대표=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역할과 이를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도시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광주정신'이다.

희생과 나눔, 대동의 '광주 정신'을 이제는 나눠야 한다. 지금도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가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이들에게 광주의 정신을 나누는 것은 광주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의 원조와 지원, 봉사활동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광주는 이러한 원조와는 다른 형태의 역할, '광주 정신의 국제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서지안 모토모 대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술창업 및 지식서비스 창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이 추진중이다. 이 때문인지 신규 창업기업수는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창업활동은 위축돼 있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청년기업의 자생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창업기회 및 능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높은 창업비용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책임이 주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려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진욱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원장=혁신도시가 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물을 때다. 혁신도시의 출발은 좋다. 자연풍광과 친절한 지역민, 맛있는 음식 등으로 적어도 '광주·전남에 가봤더니 꽤 살만하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전 가족이 혁신도시로 오지 않는 이유의 배경에는 부족하고 실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교 문제다. 두 번째는 이전기관 가족들이 함께 한 친구와 지인이 없다는 것이다. 나중과 광주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임직원과의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주 지역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빛가람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로 떠나는 신나는 탐험! 고흥우주항공축제로 오세요!”

2015 고흥 우주항공 축제

GO~G0~ 상상 SPACE GO~

보GO! 즐GO! 체험GO! 공유GO! 맞GO!

2015. 4. 24(금) - 4. 26(일) 3일간

주최: 박지성 공설운동장
 보조행사장: 나로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표 프로그램	• 미디어 퍼사드 대북공연 • 샌드아트 공연 • 우주센터 발사기지 견학	• 미디어와 과학이 결합된 신개념 포퍼먼스 • 스페이스 샌드아트 공연 • 축제기간중 우주센터 견학(사전 예약제)
	• 주행사장 (박지성공설운동장/고흥읍)	• 별자리관측 등 35종
주요프로그램	• 제2행사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몽래면)	• 3D입체상영관, 4D입체상영관 • 상설전시·체험 : 90종
	• 제3행사장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동일면)	• SOS(3차원 대형 가상화 시스템), 천체투영관 • 상설전시·체험 : 12종
	• 제4행사장 (고흥우주천문과학관/도양읍)	• 천체투영실, 주·보조관측실 (달, 목성, 별자리 관측) • 전시 20종, 천체관련민들기 체험
기타 주제 프로그램	• 물로켓발사 경진대회 • 우주항공 스텔프갤러리 • 어린이 창작 사생대회 • 천체관측 프로그램 • 스페이스인터스텔라 • 스페이스가든	• 초중고 학생들의 물로켓 발사 경진대회 • 고흥 우주항공 체험시설 견학이벤트 • 우주 이미지 그리기 대회 • 침전경사로 축제장에서 주야간 관측 • 영화 인터스텔라 연출 • 우주정원 연출

4.24 (금)
 • 물로켓발사 경진대회
 • 우주발사 사생대회
 • 제11회 희망고흥권기대회
 • 나도가수다(예선) (16개읍면/22명)
 • 고흥전속예술단 공연
 • 흥양수군 퍼포먼스
 • 개막식
 (미디어퍼사드대북쇼/샌드아트공연/축하쇼)

4.25 (토)
 • 전국청소년예술경연제(예선)
 • 나도가수다(예선)기관사회단체(15팀)
 • 고흥 청소년 우주화합 콘서트 (고흥동초, 오계초/고흥고, 연스림 등)
 • 전국청소년예술경연제(결선) (결구름 시크릿 출연)
 • 제1회 고흥우주 커피바리스타대회(25일~26일)
 • 제12회 고흥우주항공예 전남 배드민턴 대회(25일~26일)
 • 제6회 독일신동요제 및 동시대회

4.26 (일)
 • 제2회 한시백일장
 • 고흥지역예술인공연
 • 나도가수다(결선)
 • 폐막식

주최: 고흥군 주: 고흥군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고흥시립도서관
 참여기관: 나로우주센터, 나로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